

사라지는 전남 어린이집 4년 만에 187곳 문 닫아

저출산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전남지역 어린이집이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다.

전남의 경우 도시지역과 달리 마땅히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면(面) 단위 지역이 많다. 농촌 어린이집 폐업은 보육을 위해 지역을 떠나게 만드는 '보육난민' 상황을 초래해 보육정책 방향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도내 국공립·민간·가정 어린이집은 1천54곳이다. 도내 어린이집은 지난 4년 동안 감소세가 뚜렷한 실정이다. 실제 2017년 1천241곳, 2018년 1천205곳, 2019년 1천

어린이집에 입소한 0-6세의 아동 수는 3만9천570명이다. 2017년 5만3천772명, 2018년 5만1천201명, 2019년 4만7천796명, 2020년 4만4천148명으로 매년 2천~4천명씩 감소하고 있다.

결국 출산을 감소가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의 감소로 직결돼 폐원으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 보육이 늘면서 원아 부족 사태는 더 악화됐고 폐원 위기에 내몰리는 어린이집도 급증하고 있다.

농촌 보육 난민 사태는 경영난이 주원인으로 꼽힌다. 농촌 어린이집은 원아 수가 11명 이상 돼야 원장 인건비의 80

%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유아반은 8명 이상 보육교사 인건비의 30%를 보조받을 수 있지만 면 단위

저출산·코로나19 겹쳐 '보육난민'

원아 10명 채우기도 버거운 상황

정부 지원 받기 '하늘의 별 따기'

147곳, 2020년 1천84곳을 기록하는 등 4년 간 187곳의 어린이집이 문을 닫았다.

도내 어린이집이 줄줄이 문을 닫는 것은 출생률 감소로 인해 원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남지역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15명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현재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합계출산율 2.1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지역 내 출생아 수는 지난해 1만명대가 무너졌다. 2018년 1만1천238명에서 2019년 1만832명, 지난해 9천700명으로 매년 평균 600명 이상씩 감소하고 있다.

출산율 감소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의 감소로 이어진다. 올해 상반기 도내

어린이집은 8명 조건을 충족시키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아동 수가 감소할 경우 보육교사의 고용 유지가 어려워지고 이는 곧 '보육서비스 공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보육 공백이 발생할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부모들이 짊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어린이집 폐원은 전국적인 출산율 저하 현상으로 불가항력적인 사항인 만큼 국비·도비 등 각종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지만 근본 대책으로 보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심재현 농촌경제연구원 정책연구센터장은 "저출산 위기를 보육정책 방향 전환을 통한 질 개선의 계기로 삼는 한편, 아이를 출산한 후 아이를 지역사회가 함께 돌봐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아이들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전남지역에 제도가 없는 게 문제인지, 아니면 기존 제도의 활용성이 낮았는지, 혹은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후성기자

‘명낙대전’ 결국 호남이 승패 가른다

25일 광주·전남, 26일 전북 경선 최대 승부처 부상
明 “전략적 투표 기대” vs 洛 “호남서 추격 본격화”
후보직 사퇴 정세균 지지표 흡수 여부도 변수 전망

의 기회를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전 대표가 자신의 고향이자 정치적 성장 배경인 호남에서 이 지사에 앞서거나 혹은 처음으로 과반득표 저지에 성공할 경우 마지막 남은 수도권 경선에서 대역전을 노릴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25일의 광주·전남 경선과 26일의 전북 경선을 포함한 이른바 ‘호남 대첩’의

결과가 사실상 민주당 차기 대선 후보를 결정할 것으로 보여 추석 연휴기간 동안 호남 표심을 얻기 위한 양 진영의 치열한 혈투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3일 후보직을 사퇴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지지표를 누가 더 많이 흡수하는냐 여부도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호남 순회 경선을 약 2주 앞둔 시점에서 전북이 지지

기반인 그가 중도 하차함에 따라 경선 판세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호남 대첩’을 앞둔 이 지사 캠프는 당의 최대 텃밭인 호남 경선에서 과반 연승을 내달려 ‘본선 직행’ 굳히기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이 지사 측은 ‘될 사람’을 밀어주는 호남 유권자들의 전략적 투표 성향이 대세론에 그대로 올라탈 것이라는 기대를 감추지 않고 있다.

반면, 의원직 사퇴 카드는 초강수로 뒤집기에 나섰던 이 전 대표는 '1차 슈퍼워크'에서 31.4%의 지지를 받아 처음으로 누적 득표율을 30%대로 끌어올렸다.

이 전 대표 캠프는 추격의 발판을 마련한 만큼 최대 승부처인 ‘호남 대첩’에서 역전의 발판을 만들어 2차 슈퍼워크(10월3일·49만명)에서 승부를 뒤집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추석 명절로 호남 경선까지 2주의 시간이 주어질 만큼 이전 대표의 고향이기도 한 호남에서 추격을 본격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한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날 경선 후보 사퇴를 전격 선언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지 88일만이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족한 저를 오랫동안 성원해준 많은 분께 고개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이제 평당원으로 돌아가 하나 되는 민주당,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백의종군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다른 후보 지지 선언 여부에 대한 질문에 “저는 일관되게 민주당을 지지한다”고만 언급하며 즉답을 피했다.

호남 순회 경선 전 사퇴를 선언한 것이 같은 호남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를 배려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는 “저는 민주당을 사랑한다. 대한민국을 더 사랑한다”며 “그래서 저의 결정은 민주당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라고만 답했다.

/김진수기자



정성으로 빛은 송편 추석 연휴를 닮아 앞둔 13일 오전광주 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한기위 맞이 사랑의 송편 나눔 행사가 열렸다. 이날 북구자율방재단원과 자원봉사자들이 관내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할 송편을 정성스럽게 빚고 있다. /김애리기자

12-17세 4분기 백신 접종...이달 중 세부 계획 발표

12-17세가 포함된 올해 4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과 일정 등 세부 계획이 이달 중 발표된다.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소아·청소년 접종 시기는 4

분기 중”이라며 “4분기 계획에 포함해 10월 이후 접종계획을 9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반장은 백신 종류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12-17세가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백신은 화이자 백신이 유일하다”며 “모더나 백신은 현재 허가가 신청

돼 심사 과정에 있기 때문에 추후 허가되면 이후에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전날 유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의 영상회의에서 소아·청소년 백신접종 방안을 논의했다.

질병청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가 소아·청소년도 접종 대상자에 포함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실제 백신접종 대상과 시행 시기, 활용 백신, 접종 기관 및 접종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10대 연령층 중에서는 앞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일정에 맞춰 고등학교 3학년이 화이자 백신을 맞았으며 지금은 18-19세가 40대 이하 그룹에 포함돼 1차 접종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디자인비엔날레
Gwangju Design Biennale

광주광역시
GWANGJU CITY

gicp 광주디자인진흥원
Gwangju Institute of Culture & Arts

d-Revolution

9.1-10.31

2021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장소 | 광주비엔날레전시관, 광주디자인진흥원

주최 | 광주광역시

주관 | (재)광주디자인진흥원

협력주관 | 광주시립미술관